

컴퓨터가 알려주는 신간도서 정보

한국데이콤·韓經 등서 도서정보 서비스 시스템 개발

서점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컴퓨터를 통해 신간정보를 파악하여, 원하는 책을 서점이 나 출판사에 직접 주문할 수 있는 시대가 국내에서도 성큼 다가오게 됐다.

한국데이터통신주식회사(DACOM)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각각 도서안내 정보시스템을 개발, 지난 3월부터 가입자들에게 신간도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함으로써 정보화사회의 물결이 이제 출판계와 서점가에도 본격적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는 느낌이다.

도서정보 검색에 획기적 이벤트

한국 데이콤과 한국경제신문사 양쪽의 시스템개발 담당자들은,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조사해본 결과 도서정보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아 이번 도서안내 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서점에 쌓인 엄청난 책더마 속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책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힘들어졌을 뿐 아니라, 신문·잡지 등의 단편적인 도서안내 기사로는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번 시스템 개발로 사용자는 광범위한 도서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서점측에서도 독자가 서점으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고전적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잠재독자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데이콤이 기존의 생활정보서비스 프로그램 '천리안Ⅱ'에 도서안내 아이템을 마련하고 2200여명의 가입자들에게 신간정보와 베스트셀러목록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1일부터. '천리안Ⅱ'는 각종 생활정보를 데이콤의 메인 컴퓨터 기억장치에 수록, 이용자가 단말기의 키보드를 조작하면 관련 내용을 찾아주는 정보검색서비스인데, 도서정보를 포함해 증권·기상·문화행사 등 모든 15종류의 아이템이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콤에 가입한 사용자는 간단한 키보드 조작만으로, 교보문고에서 매주마다 조사·작성한 신간 및 베스트셀러목록을 바탕으로 데이터 베이스에 수록된 천여권에 이르는 도서들의 제목·저자명·출판사 이름은 물론 간략한 내용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고 DB개발본부 황우태대리는 소개했다.

데이콤은 일반인들의 생활정보 이용편의를 위해 85년 10월부터 체신부의 협조를 얻어 서울시내 3개소(데이콤 본사, 중앙우체국,



데이콤과 한경KETEL이 도서안내 정보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독자와 서점·출판사를 연결시키는 컴퓨터망 시대가 성큼 다가서게 됐다.(사진은 교보문고 도서안내)

광화문우체국)에 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해오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이곳을 찾으면 정보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경제신문사도 기존의 전자신문 '한경KETEL'에 문화예술 도서정보 아이템을 추가하여 지난 3월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교보문고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매주 새로운 자료를 입력시키는 것은 데이콤과 동일하지만, '한경KETEL'의 경우 한국경제신문에 실렸던 독서다이제스트·서평·독후감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경KETEL' 가입자는 2500여명 정도.

그러나 사용자가 원하는 도서정보를 자유자재로 찾아볼 수 있게 되기까지는 앞으로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데이콤과 한경 양쪽의 관계자 모두 시스템의 본격 가동을 4월말 내지 5월초로 잡고 있는데다가, 현재로서는 비교적 신간의 도서만을 주제선택 검색방법으로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화검색(free-term 방식)과 달리 이 검색방법은 특정주제별이나 출판사·저자별 또는 가격별로 도서정보를 마음대로 찾아 볼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데,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는 것이 데이콤과 한경 관계자들의 말이다.

도서주문·판매도 컴퓨터로

한편, 데이콤과 한경 양쪽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교보문고측은 앞으로 매장에서 직접 신간자료를 입력시키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현재 일주일 단위로 신간정보를 제공받던 것에서 새로운 책이 서점에 입하되는 즉시 24시간내에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잠재독자를 개발한다는데 우선적인 의의가 있으며, 판매증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교보문고 郭相夏 영업부장은 시스템개발의 의의를 말했는데, 빠르면 7·8월경쯤 데이콤과의 협조하에 컴퓨터를 이용한 주문·판매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른바 '텔레 오더링'(tele-ordering)이라고 하여 구미지역에서는 여러 해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최신 판매방식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서점이 자취를 감추고 출판사와 독자가 컴퓨터를 통해 판매와 주문을 주고받는 무점포 판매망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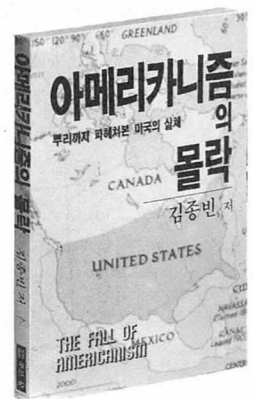
교보문고가 '텔레 오더링'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서점내 업무의 전산화, 적절한 수금방법개발 등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지만, 빠른 시일안에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서점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겠다고 박상하 부장은 의욕을 보였다.

—오애리 기자

화제의 책

在美 언론인의 미국비판론

김종빈 지음 「아메리카니즘의 몰락」



팽창과 大國主義의 정점에 선 미국의 현재에서 역설적으로 몰락의 징후를 읽어내는 일련의 번역서들이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在美언론인 김종빈씨에 의해 「아메리카니즘의 몰락」이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저널리스트 특유의 예리한 현실감각이 명쾌한 문장 속에 번득이는 이 책은 이른바 親美나 反美에 앞서 「知美」의 요체가 될 만한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미국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열쇠가 필요하다. 그 열쇠들이란, 첫째 미국자본주의의 끝없는 '팽창성', 둘째 대륙국이 갖는 독특한 '세계성', 셋째 아메리카의 체질 속에 용해돼 있는 '이중성'인데, 저자는 이 세가지 열쇠를 동원하여 성장과 번영의 이면에 숨어있는 미국의 실체를 뿌리까지 파헤친다.

건국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多민족 사회 국가로서의 미국의 형성과정을 입체적으로 추적하는가 하면, 사회 전문부에 걸쳐

미국의 현실을 구석구석 들춰냄으로써 미국이 서 있는 현재의 위상을 가능해주고 있다. 또한, 27번이나 바뀐 성조기를 통해 확대지향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일등국의 나르시시즘에서 깨어나는 미국인들의 모습에서는 사양길에 접어든 '수퍼'와 '점보'의 신화를 찾아내기도 한다.

저자는 경향신문 문화부차장, 서울신문 조사부차장 등을 지낸 뒤 1974년 도미한 현지 언론인.

푸른꿈/A5신/354면/3800원